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25	06. 01	06. 08
대 표 기 도	장래황 형제	이상호 목사	윤미경 자매
성 경 봉 독	장래황 형제	김정규 형제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브레멘지역 청년 연합 찬양예배 - 5월29일(목) 오후2시 한민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설교-한민교회, 기도회 인도-반석교회, 축도-연약교회)
4. 기독교인 투표 캠페인 - “기도하고 투표하는 성도님은 애국자입니다”
5. 21대 대통령 재외 선거 - 5월 20~25일까지(8~17시까지, 함부르크 총영사)
6. 나눔의 시간 -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주돈혁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5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55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윤선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9 : 9 - 13(신p13) (Matthäus 9:9-13)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관계회복 - 공감과 이해(I)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과 입시와 취직 준비생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백승민 자매의 갑상선 암 수술 이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4. 브레멘지역 연합찬양제를 위해서(5월29일, 오후 2시, 한민예배당)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패배

본질상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베푸 은혜를 크게 생각하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은혜를 베푸셔도 패역한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다른 사람의 조언도 무시합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맞이하는 결정적인 패배는 이러한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쟁의 본질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매일 영적전쟁은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지 세상 방법을 기준 삼고 자기 이성을 따라갈 지의 대립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세상 방법이 옳게 보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무시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고 감행한 출애굽도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러다 망하겠다는 위기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도 자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 김서택 목사(가나안 은혜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관계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해 보셨나요?
2. 평소에 거리를 두거나 꺼리는 사람이 있나요?